

스릴러·다큐·드라마...국내외 독립·예술영화 매력 속으로

광주독립영화관, 15일까지 '인디피크닉 2021 in 광주'

'세계의 욕망'·'고군분투 생활기' 등 6개 섹션 23편 상영
'초록밤' 윤서진 감독·강길우 배우 14일 관객과의 대화

광주극장, 11~18일 '세계가 극찬한 독립영화'

'멋진 세계'·'카우'·'폴타임'·'굿 럭 투 유, 리오 그랜드'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시네마에서 여름 바캉스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평소 극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독립영화를 즐기고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GV까지... 광주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에서 다양한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년을 달군 한국독립영화를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11일부터 15일까지 '인디피크닉 2021 in 광주' 기획전을 진행한다. 인디피크닉은 '세계의 욕망', '고군분투 생활기', '나의 이름이 너를 부를 때', '어둠이 왔을 뿐', 'Good or Better',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등 6개 섹션으로 나눠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 23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단편1: 세계의 욕망'에서는 우수 단편상과 CGK활영상을 동시에 거머쥔 이택 감독의 '불모지'와 짧고 강렬한 은유를 통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서식지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승욱 감독의 애니메이션 '바다 위의 별', 소월길에서 몸을 파는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담은 윤대원 감독의 '매미', 단편대상 수상작인 양재준 감독의 '보속'을 상영한다. '단편2: 고군분투 생활기'는 전승배 감독의 애니메이션 '건전지 아빠', 만성 비염 환자 보형이 이비인후과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아주 특별한 치료법을 배달받는 이야기를 그린 김보람 감독의 '내코가 석재', 헤어질 남자친구의 전 직장에 대신 퇴직금을 받으려 가는 내용을 담은 전재연 감독의 '퇴직금', 이준섭 감독의 '텐트티트'를 만난다. '단편3: 나의 이름이 너를 부를 때' 섹션에서는 대량 학살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날의 기억을 애니메이션으로 증언한 강희진 감독의 다큐멘터리 '메이·제주·데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친구와 오토바이 문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길 위를 떠다니는 청소년 배



'제씨 이야기'



'뫼대'



'폴타임'

달 노동자들을 만나는 황선영 감독의 '씨티백',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 배우로도 잘 알려진 이주승 감독의 '뫼대'를 선보인다. 이 밖에 박재현 감독의 '나랑 아니면', 허태인 감독의 '두 여자', 유재인 감독의 '쓰는 일', 장태구 감독의 '어디에도 없는 시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관객들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 8월 13일 전승배(건전지 아빠)·김보람(내코가 석재)·전재연(퇴직금) 감독이 14일에는 윤대원(매미)·양재준(보속)·강희진(메이·제주·데이)·이하은(제씨 이야기) 감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아울러 2021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활영상을 포함해 3관왕을 수상한 '초록밤'의 윤서진 감독과 강길우 배우가 14일 오후 7시 10분, 조대영 디렉터의 진행으로 GV를 갖는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가 극찬한 독립영화들

스릴러,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광주극장은 오는 11·15·18일 개봉작을 공개했다. 먼저 11일 개봉하는 '멋진 세계'는 니시카와 미와 감독의 신작으로 13년 만에 출소한 전직 야구자 미카미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같은 날 개봉하는 '카우'는 영국 켄트주 농장에서 살아가는 젓소 '루마'의 여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기록한 동물 다큐멘터리로, 칸영화제에서 세 번의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던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신작이다. 단 한 번도 섹스에 만족해 본 적 없던 은퇴교사 '낸시'가 '리오 그랜드'의 퍼스널 서비스를 경험하며 인생 최고의 해방을 시도하는 굿 럭 무비로 제 38회 선댄스영화제와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인 '굿 럭 투 유, 리오 그랜드'도 11일 개봉한다. 15일 개봉하는 '뱅크시'는 거리의 아티스트 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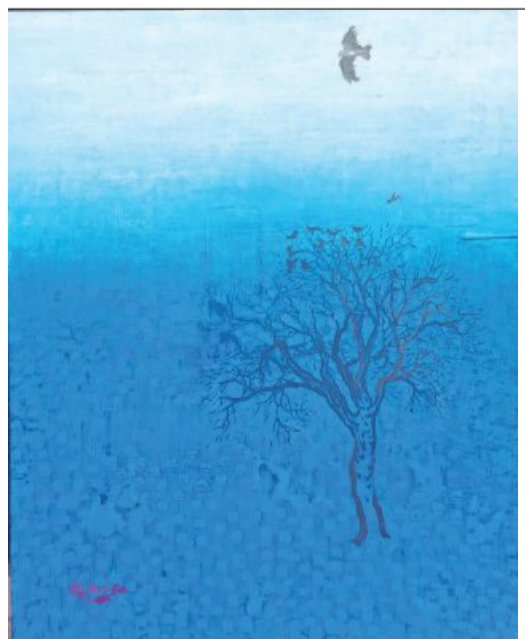
시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영국 브리스톨의 담배박을 스프레이로 물들이던 어린 시절부터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된 현재의 이야기들을 동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적한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두 형제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영화 '늑남' (18일 개봉)은 한가족의 이야기를 11년간 기록하며 두 형제와 얼마 사이의 이해가 필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18일 개봉하는 '폴타임'은 한 여성의 일상이 무너져 가는 위기를 스릴러 장르에 잘 녹여낸 작품으로 다양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미야 한센-러브 감독의 '베르히만 아일랜드', 청춘의 꿈과 사랑, 우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착한 진심이 배우들의 청량한 연기를 통해 매력을 발산하는 '첨뽀 필름을 타고'도 함께 상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삶, 자연으로의 초대'...강혜인 첫 개인전으로 초대

무등갤러리 16일까지...100호 대작 5점 등 50여점 선봬



'행복-기다림 1'



장복수 작 '응시'

그물에 걸린 생선을 정리하는 어부들,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어부들 등 생생한 삶의 현상이 화면에 잡혔다.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의 모습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의 모습도 보인다. 노란 유채꽃과 바다,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일출봉 풍경도 눈길을 끈다. 일상의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등을 담은 강혜인 작가 개인전이 11일부터 16일까지 광주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삶 그리고 자연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100호 대작 5점 등 모두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빛과 어둠을 통해 자연과 토속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로 담양시장의 활기찬 모습,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광, 연꽃의 은은한 매력 등이 담겼다.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는 등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강 작가는 30대 중반인 17년 전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실행에 옮겼다. 문명호 작가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미술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광주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개인전을 선보일 열지는 못했고 이번에 용기를 내 첫 개인전을 준비했다. 강 작가는 처음 그렸던 작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지리산 계곡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었는데,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음영과 자연스레 흘러가는 계곡물이 어우러졌다. 이후 인물, 풍경, 정물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려온 작가는 앞으로 인물화에 좀 더 매진하려 한다. 강 작가는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작품들을 그리고 싶다"며 "작품에 대한 열정과 긴 여정을 지나 첫번째 개인전을 통해 나의 작품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담양에 거주하는 강 작가는 현재 광주미술협회, 신현회, 기독교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사계를 문화예술로 담다'

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문예회관에서 9월 11일까지

'다채로운 무등산 풍경을 만나다.'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장복수) 다섯 번째 그룹전이 오는 9월 1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예회관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기획전이다. '무등산 사계를 문화예술로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의 봄여름가을겨울 풍경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는 한국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 미술의 발전을 꾀하고 미술

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창립된 미술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매년 정기전을 비롯해 타 지역과의 교류전을 진행,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견·원로 작가 54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무등산의 아름다운 곡선을 느낄 수 있는 이재현 작가의 '무등산의 해질녘'은 수목화의 매력인 흰색과 검은색의 농담과 함께 강렬한 붉은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며 장인숙 작가의 '무등이여'는 흰눈 내린 겨울 무등산의 풍경을 소담하게 담

아냈다. 또 장찬홍 작가의 '강산여화'는 소박한 색감과 터치 위안과 힐링을 전하는 작품이며 최정렬 작가의 '무등계곡'은 흐드러지게 핀 봄꽃과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 푸른 나무가 어우러져 화사한 느낌을 전달한다. 푸른빛이 인상적인 장복수 작가의 '응시'는 하늘을 나는 새와 나무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무등산 사계를 문화예술로 담다' 전 개막식은 16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두드림 난타, 판소리 '춘향가' 등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무등산 그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장복수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며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도 무등산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



'혼불' 전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세요

최명희문학관, 창작동화 공개

대하소설 '혼불'에 등장하는 전환(867~936) 이야기가 영상물로 제작됐다. 최명희문학관(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은 전환을 소재로 한 창작동화를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상물은 소설 '혼불'의 가치와 후백제와 견훤의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문화 확산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됐다. 이번 영상물은 '혼불'속 견훤대왕 이야기와 '백제인 마루' 두 편. 전자는 1시간 분량으로 '혼불' 제8권과 제10권에 나오는 견훤과 후백제 부분을 12개의 주제로 구분해 엮었다. 각각의 주제는 '탄생설화, 용돌입하는 그 혼', '스물여섯의 견훤,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 '서른네의 견훤, 유민들의 설날', '왕업의 터, 벽차고도 흥대한 꿈' 등이다. 후자는 16분 분량으로 '견훤은 왜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전주를 도읍으로 정했을까'라는 물음이 모티브가 됐다. 견훤이 전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주에 후백제 도읍을 세울 결심을 하게 된 일화를 상상해서 썼다. 한편 이번 제작한 영상물은 문학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최명희문학관 마음자리'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